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50-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한국은 정말 끝났을까?
- 세대별로 살펴본 저출산과 미래 사회 인식

2025. 10. 1.

담당자 신하은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27

e-mail | heshin@hrc.co.kr

이은형 인턴연구원

e-mail | berry2704@naver.com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한국은 정말 끝났을까?

- 세대별로 살펴본 저출산과 미래 사회 인식



주요 결과

- 독일의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는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영상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2060년 한국이 인구, 경제, 사회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3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경제 개발 이후 저성장에 진입하며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이 '2060년에 붕괴할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까? 특히 30년 후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층과 과거 경제 성장을 이룬 중장년층은 각각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2025년 7월 11일~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 결과 92%가 저출산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10명 중 7명은 미래 합계출산율이 0.82명과 유사하거나 더 하락할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의 예측과 달리 30년 후 사회·경제 붕괴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오히려 30년 후 문화·여가·의료 인프라가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우세하다.(문화여가생활 46%, 의료와 돌봄 58%)
- 경제 전망에서도 30년 후 1인당 GDP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현재와 유사한 30위권(18%), 40위권 이하(26%)보다 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많다.
- 그러나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다. 30대 이하에서 30년 후 1인당 GDP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32%로 50대 이상(54%)보다 낮다. 또한, 30대 이하 청년층의 50% 이상이 '대한민국은 멸망 혹은 소멸로 향해가고 있다' 등의 미래 비관적 진술에 동의한다.
- 청년이 원하는 저출산 정책은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48%)'와 '주거 안정성 확보(39%)'로, 미래 세대의 주역이자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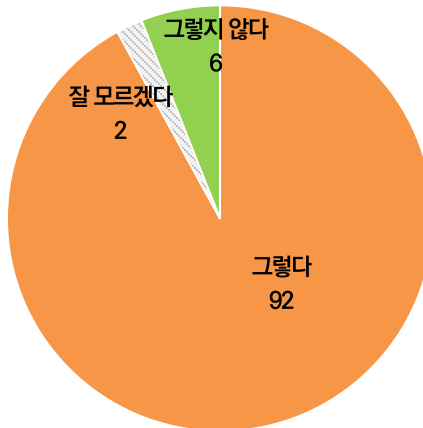
저출산 및 미래 경제·문화·의료 전망

**92%가 저출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합계출산율은 0.82명과 유사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

대다수(92%)는 저출산 현상이 문제라고 인식한다. 또한 10명 중 7명가량은 미래의 합계출산율이 2025년 1분기 합계출산율인 0.82명과 유사하거나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2·30대에서는 10명 중 1~2명만이 현재보다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단위: %)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 92%가 동의



질문: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그렇다(매우+그렇다), 그렇지 않다(전혀+다소) 응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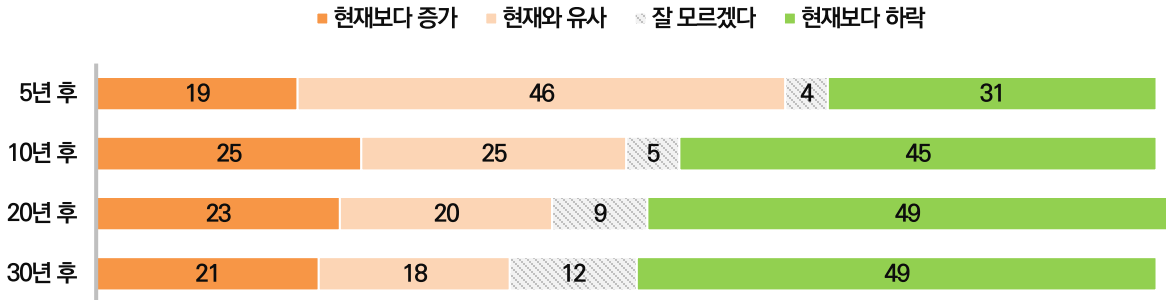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2명

(단위: %)



	사례수 (명)	현재보다 증가	현재와 유사	현재보다 하락	잘 모르겠다
30대 이하	(301)				
5년 후		12	40	40	8
10년 후		13	23	56	8
20년 후		14	19	56	11
30년 후		17	15	56	12
40대	(172)				
5년 후		13	49	35	3
10년 후		21	27	48	4
20년 후		20	18	55	8
30년 후		16	18	56	10
50대 이상	(527)				
5년 후		25	49	24	2
10년 후		32	26	38	3
20년 후		30	21	42	7
30년 후		25	19	43	13

질문: 귀하께서는 합계출산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11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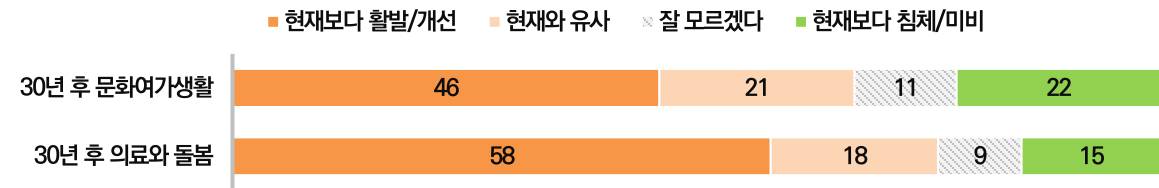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사회문화적으로는 붕괴 예측과 달리 현재보다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

‘한국은 끝났다’ 영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문화여가, 의료돌봄 등의 인프라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활발해지거나 개선된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 10명 중 4~5명(46%)은 30년 후 우리나라의 영화·스포츠·가요·여행 등의 질과 횟수가 현재보다 활발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또한, 10명 중 6명(58%)은 의료 기술·인력·돌봄이 현재보다 개선되어 있을 것이라 응답하며 문화와 의료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46%는 미래 문화여가생활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 58%는 의료와 돌봄이 개선될 것 예상

(단위: %)



질문: (문화여가생활) 영화, 스포츠, 가요, 여행 등의 문화·여가의 질과 횟수가 현재와 비교해서 어떤 수준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의료와 돌봄) 의료 기술, 의료 인력, 요양, 돌봄의 양과 질이 현재와 비교해서 어떤 수준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비고: 현재보다 침체/미비(매우+다소), 현재보다 활발/개선(다소+매우)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11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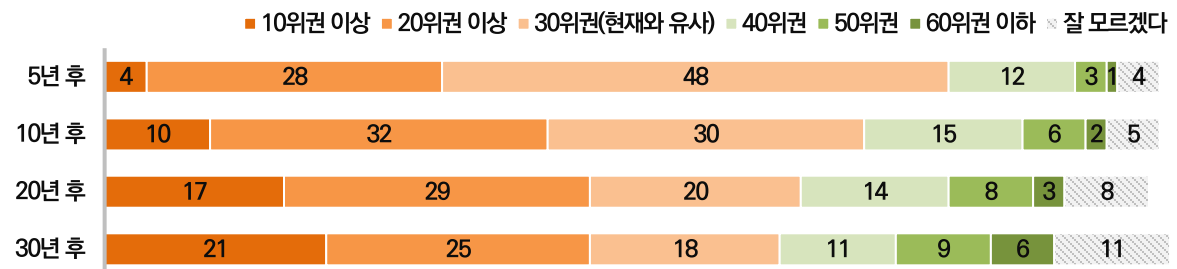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0년 후에도 경제적 성장 이룰 것으로 예측

영상에서는 GDP가 2040년 정점을 찍고, 이후 영구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 예측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1인당 명목GDP를 예상하게 한 결과, 30년 후에 현재보다 높은 세계 20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46%이며, 현재와 유사한 30위권을 예상하는 사람은 18%, 현재보다 낮은 40위권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는 사람은 26%이다.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인정하지만, 30년 후의 먼 미래에도 경제적 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1인당 명목GDP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

(단위: %)



질문: 귀하께서는 미래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가 현재의 어느 국가 수준일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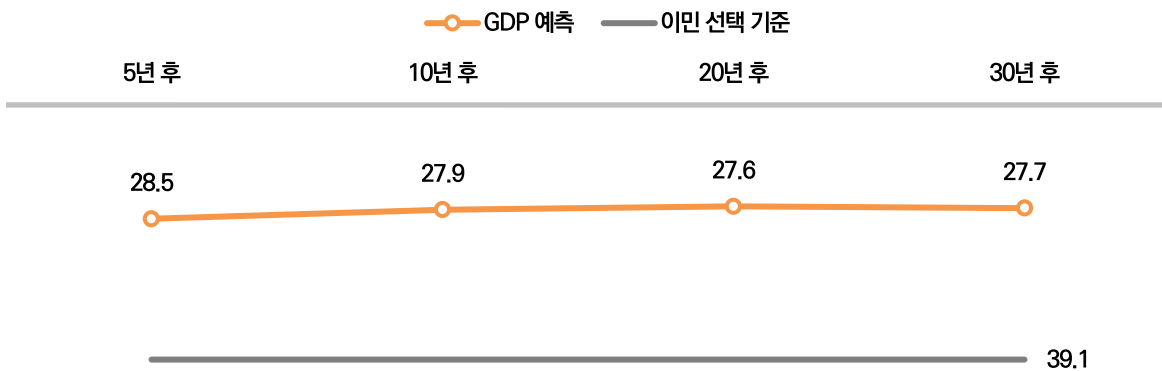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7.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저출산으로 인해 해외 이주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영상의 주장과 달리, 사람들은 이민을 가야 할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1인당 GDP 10위권 이상을 10위, 20위권 이상을 20위 등으로 점수화해서 살펴보았을 때, 응답자들이 예측한 미래 1인당 GDP는 평균 28~29위 수준이다. 한편, 1인당 GDP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변해야 이민을 선택할지를 묻은 결과, 이민을 갈 것이라는 응답은 평균 39위 수준이다. 미래 1인당 GDP로 전망하는 수치보다 낮고, 이는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선 '대규모 탈출'을 할 정도의 경제 상황이 닥치리라는 주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엔 어려워 보인다.

**평균적으로 1인당 명목GDP가 30위 후반에 이민을 갈 것으로 응답,
미래에 예측하는 GDP보다 낮은 수준**

(단위: 위)



질문: 명목 GDP 예측 - 귀하께서는 미래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가 현재의 어느 국가 수준일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이민 선택 기준 - 우리나라의 경제수준(1인당 명목 GDP)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고 할 때 이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머무시겠습니까?

비교: 명목 GDP 예측 - 5년 후/10년 후/20년 후/30년 후 시점별로 질문함

이민 선택 기준 - 1인당 명목 GDP 순위에 따른 이민 의향(이민을 선택할 것 응답)의 평균 순위를 산출한 결과값이 39위임

응답자 수: 명목 GDP 예측 - 1,000명

이민 선택 기준 - 1인당 명목 GDP 순위권에 따라 하나라도 '이민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한 393명

조사기간: 2025. 7.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연령대별 미래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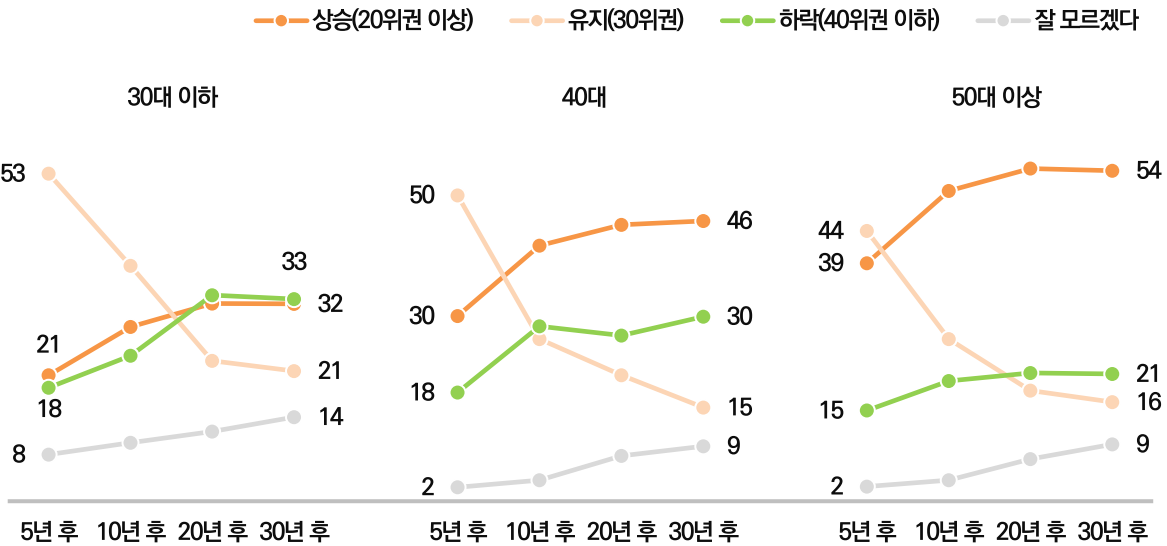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응답자들은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이며 앞으로도 완화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민을 갈 정도의 경제적 충격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하진 않았으며, 문화·여가·의료·돌봄 시스템은 현재보다 활발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30년 후의 우리나라에 대해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자세히 살펴본 결과, 30년 후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20~30대는 중장년층과는 달리 미래 불안감을 숨기지 않는다. 연령대별로 미래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0년 후 1인당 GDP에 대해 30대 이하 청년 10명 중 3명은 상승, 10명 중 3명은 하락 예측

우선 앞서 제시한 1인당 GDP 전망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았다. 50대 이상에서는 절반이 넘는 54%가 30년 이후 1인당 명목GDP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30대 이하에서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은 32%에 불과하다. 더불어 30대 이하 응답자 중 33%가 1인당 GDP가 40위권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청년 10명 중 3명은 상승, 10명 중 3명은 하락을 응답하며 양분화된 결과이다.

50대 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1인당 명목GDP상승, 반면 30대 이하 청년은 양분화 전망

(단위: %)



(단위: %)

	사례수 (명)	상승 (20위권 이상)	유지 (30위권)	하락 (40위권 이하)	잘 모르겠다	평균(위)
30대 이하	(301)					
5년 후		21	53	18	8	30.3
10년 후		28	38	24	10	30.2
20년 후		32	23	34	11	31.4
30년 후		32	21	33	14	31.8
40대	(172)					
5년 후		30	50	18	2	29.0
10년 후		42	26	29	3	29.0
20년 후		45	21	27	7	28.6
30년 후		46	15	30	9	29.3
50대 이상	(527)					
5년 후		39	44	15	2	27.4
10년 후		51	26	20	3	26.2
20년 후		54	18	21	7	25.2
30년 후		54	16	21	9	25.0

질문: 귀하께서는 미래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가 현재의 어느 국가 수준일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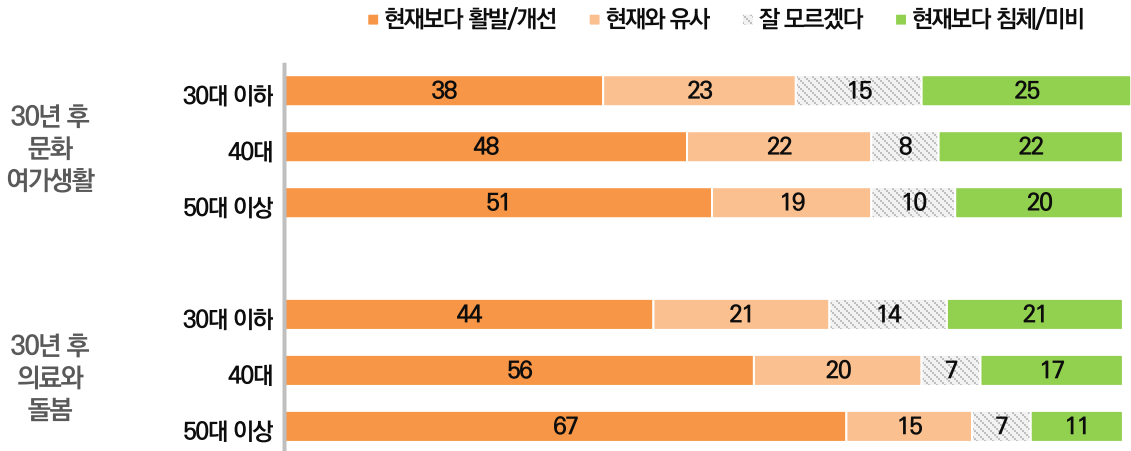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7.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0년 후의 문화여가 생활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활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50대 이상은 51%인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38%로 다소 낮다. 또한, 30년 후의 의료돌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0대 이하에서 44%로, 50대 이상(67%)보다 23%포인트 낮다.

30년 후 문화여가, 의료돌봄이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단위: %)



질문: (문화여가생활) 영화, 스포츠, 가요, 여행 등의 문화·여가의 질과 횡수가 현재와 비교해서 어떤 수준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의료와 돌봄) 의료 기술, 의료 인력, 요양, 돌봄의 양과 질이 현재와 비교해서 어떤 수준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비고: 현재보다 침체/미비(매우+다소), 현재보다 활발/개선(매우+다소)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11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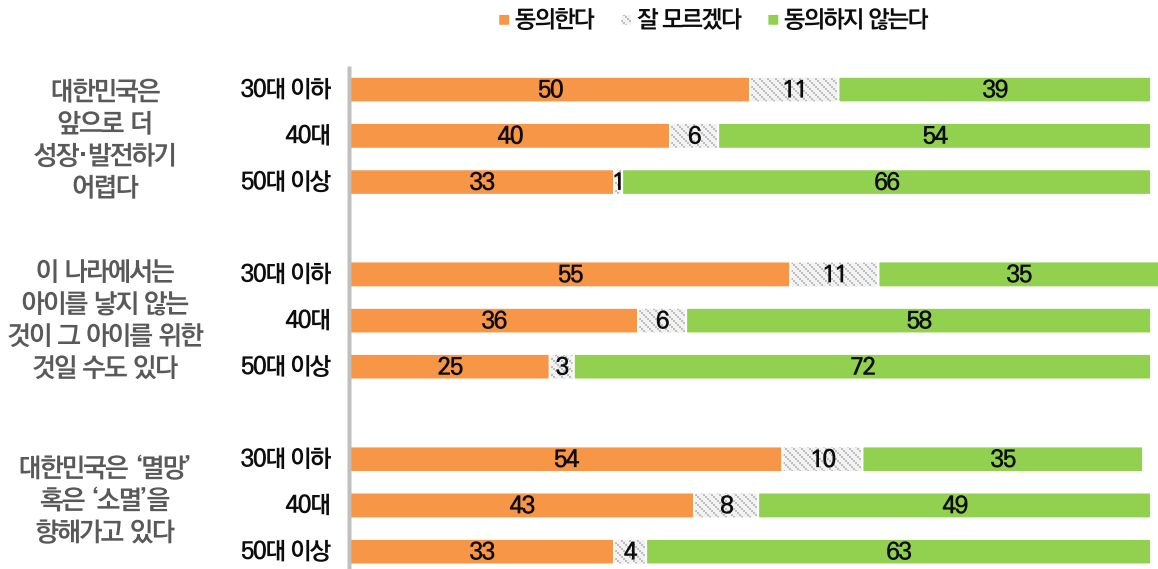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30대 이하 청년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적 진술에 동의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진술에 대한 동의 수준에서도 확인된다. 30대 이하 응답자의 50%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성장·발전하기 어렵고', 55%는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일수도 있다'고 응답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소멸(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와 같은 극단적 진술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4%가 동의한다. 각 진술에 대해 50대 이상은 각각 33%, 25%, 33%만이 동의한 것과 비교하면 중장년층 대비 청년층의 미래 불안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단위: %)

30대 이하 청년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적 진술에 동의



질문: 우리나라에 대한 아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다소), 동의한다(매우+다소)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청년이 원하는 저출산 정책

30대 이하가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 정책은 1순위 '일·육아병행제도 확대', 2순위 '주거안정성 확보'

그렇다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1순위는 '일·육아병행제도 확대(육아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로 48%이고, 2순위는 '주거 안정성 확보'로 39%이다. 동일 문항을 50대 이상에게 물었을 때, 이들도 일·육아 병행을 1순위(49%)로 꼽았지만, 2순위로는 돌봄, 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44%). 이러한 결과는 지금의 청년에게 출산을 위한 조건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주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동시에 특히 주거에 대한 중요도는 중장년층보다 실제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이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30대 이하가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 정책(1+2순위 기준) 1순위 '일·육아병행제도 확대', 2순위 '주거 안정성 확보'

(단위: %)

사례수 (명)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육아휴 직,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인프라 구축(돌봄, 의료서비스 등)	주거 안정성 확보	일자리·소득 확대	국민 인식(가치관) 제고	현금성 자원 확대	어떤 방법으로도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기타
전체 (1000)	47	40	39	27	20	15	3	1
30대 이하 (301)	48	32	39	30	15	19	4	2
40대 (172)	41	44	38	31	20	21	2	1
50대 이상 (527)	49	44	39	23	22	10	2	1

질문: 귀하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끝났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엔 현존하는 사회 경제적 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예측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출산과 그로 인한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 세대는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정황도 포착된다. 이는 곧 세대에 따라 사회와 미래에 대한 매우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청년들의 불안을 저출산 현상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우리 사회는 앞으로 청년들의 관점에서 저출산 해법을 찾고, 이들이 미래를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구조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6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1,365명, 조사참여 1,91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2%, 참여대비 52.3%)
조사일시	• 2025년 7월 11일 ~ 7월 1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